

도서관을 없애는 나라

이용남

한성대 교수 · 문헌정보학

고대 이집트에서 발굴된 유물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도서관을 '마음의 병원'으로 불렀다. 옛 지식을 전수하고 새로운 사상을 생산하면서 마음을 바로 다스리는 곳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8~19세기에 시민들의 기본권보장 장치로서 제도화된 근대 공공도서관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시설로서 중요시되고 그 기능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내 4개 시립도서관의 조직 및 명칭을 개편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해 연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어 공공도서관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서울 시내의 나머지 공공도서관들도 곧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거라니 황당하기만 하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도쿄시의 1/7, 런던시의 1/20, 뉴욕시의 1/9 수준으로 빈약한 서울시의 도서관들이 그나마 없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미치는 파급효과로 보아 전국적인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화 시대에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개편하여 평생교육 기능 중심의 시설인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오랫동안 '민중의 대학'으로 불려온 공공도서관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평생교육임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도 곳곳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어 각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 비중 있게 평생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는 평생교육이 반드시 '평생학습관'이라는 명칭의 기관에서만 수행되는 획일적인 교육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처럼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굳이 '도서관'이란 글자를 삭제하고자 애쓰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서관 명칭 변경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직후, 도서관 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내용은 도서관 명칭 변경에 관련된 시끄러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관련조항을 아예 개정하여, 행정직을 도서관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였다고 한다. 덧붙여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의 명칭 변경 조례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칭변경은 도서관장 임명에 있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줄기차게 반박해 온 도서관의 주장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이중성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행정행위까지 그래서는 안된다. 물론 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도서관 없애기 사태까지 야기한 책임의 일단은 도서관과 사서들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열악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자기계발과 이용자 서비스를 통해 행정당국이나 시민들로부터 참다운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도서관 환경과 역할 수행이 빈약하다고 해서 설치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이 도서관 간판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미진한 부분은 지도하고, 시정하면서 충분한 행정지원을 통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인간사고와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지역문화와 평생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공도서관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

표지 인터뷰	2	마지막 날까지 누리고 싶은 글쓰기의 괴로움 《너무도 쓸쓸한 당신》 펴낸 박완서씨
초점	4	부도사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얼굴	5	전문서 위기 선언한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 강희일 회장
특집	6	베스트셀러로 보는 실용서 시장 · 외
연재 기획	8	해방의 감격이 빚어낸 출판의 열정시대 - 강철주 건국 50년, 책의 사회사 ① 해방공간의 출판
특별 기획	10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인의 마음풍경들 - 이동하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① 한국문학편
출판계 소식	11	98년 출판통계 집계 · 외
외국인이 본 한국, 한국인	12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 - 이케하라 마모루 《한국이 그래도 일본을 ... 이유》 - 모모세 타다시 13 《한국인을 말한다》 - 마이클 브린
출판화제	14	읽을거리 풍성한 지구촌의 소설들 15 행복을 건네주는 '작은 잡지' 소리없는 바람
출판가	16	출판인 2세들의 도전과 실험 17 황금어장에서 대어 낚는 아이디어 회의
리뷰	18	설날 즈음에 읽는 우리 전통의 풍성함
가상대담	20	"시인은 선천적인 혁명가" - 유재천 참여시인 김수영과의 만남
만화	21	책과 오과장 - 박시백
마케팅 캠프	22	대중심리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 한기호
출판광고 클리닉	23	미디어믹스와 독자관리 통한 알뜰광고 - 마정미
이 책 그사람	24	《화침기행》 펴낸 김병중씨 《한국 대중가요사》 펴낸 이영미씨 25 《엔틱 문화예술 기행》 펴낸 김재규씨 《섬의 세계사》 펴낸 박영준씨
확대서평	26	성찰적 근대화론과 단선적 근대화론 - 신광영
서평	28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권료 연구》 - 김삼용 김현주 《판소리 담화 분석》 - 김종철 29 마루야마 마사오 《충성과 반역》 - 이향철 30 후지마 쇼오조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 김석근 한국화이트헤드학회 《창조성의 형이상학》 - 안형관 31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 조성규
	32	새책 속으로 / 34 새로 나온 책 / 48 독서퍼즐